킹제임스 성경학교

성경강해 SR#1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송 요 셉

제 7 강의 : 화목제물로 드려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기도◀

주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하나님을 자세하게 앎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 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 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소개와 인사◀

레위기 3 장에는 화평이신 그리스도, 평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 장에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번제의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을, 제 2 장에서는 "그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 그런 분이 불로 태워지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화평이신 그리스도"** 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평강의 은혜를 받고 싶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를 드린 것은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6 : 레위기 3 장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①소』**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 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의 희생 위에서 불 사를지라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44

만일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②양』**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 없는 것을 주께 드릴 것이며 그가 그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면 그 때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 그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가운데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 그 기름 즉 등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엉덩이 전체와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그것을 불 사를지니 그것이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니라

만일 그 사람의 **『제물이 ③ 염소』**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릴지니라 그는 그것에서 그의 제물을 드릴지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즉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하는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평화는 PEACE 인가, SHALOM 인가? ◀

화목, 화평은 "평강 PEACE" 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PEACE,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공포'가 판을 치고 있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내가 이제 죽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포대신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공포와 인류가 느끼고 살아가는 공포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또, "죽는 것"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도 따지고 보면 "샬롬, 평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굶어 죽을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적 평안인가, 스스로 만들어낸 억지 평안인가? ◀

기드온이 느낀 "샬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되면 → 화평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고 →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사라지는 것』** 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걱정이 안되어야 하지, 억지로 힘을 써도 안되고 참아도 안되고 딩굴어도 안되고, 그저 그냥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도 있지만, 화평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지만, 화평이 있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겁니다. 미국같이 좋은데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이 **『평강이 없으면 → 그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지요. 그 평안을 주신 평가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피와 기름, 생명과 건강의 문제 ① 생명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

주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화목의 희생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어떤 제물이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피와 기름에 관한 것"은 더 "신비"입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 받았을 때 "이제는 고기, 짐승까지도 너희의 먹을 것으로 주는데, 그러나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심시대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피를 멀리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70 년, 80 년 밖에 못사는 생명이지만, 선지든 뭐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피와 기름, 생명과 건강의 문제 ② 건강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

기름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요. 본문 마지막 절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속하는 규례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따질 것 없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화평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 ① 누가복음 24 장 46,47 절 : 회개와 죄사함 없이는 화평도 없다 ◀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왜 사람들에게 화평이 없습니까? 회개와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 그 때 화평이 임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 장로, 목사가 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으니까 → 평강도 없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서 죽음을 초월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요즘은 오히려 별종 취급을 받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들이지요. 미국 교회가 지금 갑자기 중국 지하 교회처럼 돼서 감옥에 가라면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중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 숫자를 셀 정도이지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증거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85 년 11 월 어느 날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밤 12 시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오는데, 그거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너무나 좋아서 그 평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평강이 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나노 기술 등을 동원한 최첨단 방법으로 평강을 주려고 하는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진짜 평안함은 죄사함이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불살라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철판구이가 되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평강의 은혜는, 관주에 "평강"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의 몇 곳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 ② 골로새서 1 장 20~23 절 : 화평을 주는 소망 가운데 늘 거하라◀

그의『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로 화평을 가지려면 늘**『복음의 소망』**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피,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합니다.

46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자 그들이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저는 그게 틀림없이 양이 아니면 염소일 것 같습니다. 양이었겠지요. 피가 철철 흘렀을 겁니다. 두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것이지요.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죄인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깐 동안 육체만 정결케 했습니다. 피로 죄를 가린 것이지요. 죄를 덮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못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니까 히브리서 9 장에 있는 것처럼 죄는 물론, 양심까지 정결케 하니까 죄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입니다. 그 때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대제사장이 레위 자손인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뿌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영을 받은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할 때 짐승들을 잡을 필요 없이 이미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의 증거로 그들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은 후(개역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즉, "나는 믿는다" 하고 "복이나 달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으면 믿고 회개한 후를 말씀하는 겁니다.**『정말 믿었다는 증거』**는**『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면 → 살아가게 되어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강이 임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경상도 말로 "와 이리 좋노!"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는데, 머리가 벗겨지고 꼭 개그맨처럼 말도 잘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921 윌셔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매일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한남 체인 앞에서 매일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집사 때이지요. 부인이 핍박을 하고 심지어 얼굴을 긁어도 제게 와서 "할렐루야! 어이구,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더니,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구박을 해도 그렇게 좋더라는 것이지요. 가식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화평, 평강이 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 ③ 로마서 5 장 1~5 절 : 평강의 증거—성령의 9 하모니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앎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평강: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죄를 다 용서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죄만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그래서 "화평"을 "갖는 것" 입니다. 개역은 "누린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땐 "누린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종교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이 잘되는 것과는 상관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면 만사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2 절은, "또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회복되면, 그 때부터는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지금 중국 지하 교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이도령이 속히 오리라 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설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요즘 크리스찬들과 춘향전을 비교해봅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고 올라 가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살 저택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로 데려가신다고 했지요.

인내/연단/소망: 3~5 절을 보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이루는 줄 앎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있으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 하모니: 그 즐거움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는 도레미를 한꺼번에 누르면 화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로 이루어져 사랑의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것』** 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 온유 충성 절제가 다 되는 것이지요. 음악의 음계는 8 음계이지만, 사랑의 하모니는 아홉 가지 화음이고,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화음입니다. 그 화음을 연주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 ④ 로마서 5 장 9~11 절 : 평강의 증거—그리스도를 위한 근심 ◀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도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어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근심하는 것이지요. 내 안의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근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 ⑤ 로마서 11 장 13~15 절 : 버림과 받아들임 ◀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 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잠깐 버리심으로 세상과 화해하게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조만간, 유대인들이 고토로 많이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과의 화해가 끝나고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이지요. 올해에 그럴지도 모르지요. 옛날, 칠일전쟁이 났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 공포했습니다. 세상과의 화해는 버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해는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유일의 강국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겁니다. 여기 미국에 사는 650 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뉴욕이 폭삭 가라앉으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미국 경제가 망하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주신 평강이 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미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복음 ⑥ 고린도후서 5 장 18~21 절 : 그리스도의 화해 대사 ◀

이 외에, 레위기의 화목제와 관련해 우리들이 지켜야 할 "화목"은 부부간의 화목을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7 장 11 절의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더, 고린도후서 5 장 18~21 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케 하는 **『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평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니면서 →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화해 대사가 되기 바랍니다.

당부와 권면 ◀

1 피비린내 없음을 감사하라

지금의 우리는 죄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할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것 없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미 다 드려지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죽여야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정말, **"피비린내"**가 나지요. 제가 구원 받자마자 레위기서를 읽었을 때는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누가 소를 잡으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고, 양을 잡으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고 .... 염소를 잡을 땐 .... " 하는 뭘 똑 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나 생각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니 그 당시에 흘려진 그 **『피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 흘린 피가 얼마나 홍건했을까?" 하는 생각에 그 현장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피를 봐라.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야 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죽어서 다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느냐? 너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지요. 피의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없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신도, 나도 의롭게 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으라

로마서 3 장 25, 26 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시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사탄이) 그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법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값을 치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시지요. 살인자나, 거짓말 한 사람이나 "너 죄 없어" 하면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문제인 겁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거듭나지 못해 생명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20 년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지요. 그런 죄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감사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어제도 60 여명에게 E-MAIL 을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한 사람에게서 "저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며 너무 기뻐하는 답장이 왔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답이 온 것은 처음입니다. 자신이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로 우리도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 두 몸이 새 한 사람이 되도록 더 멀리, 더 가까이 전하라

에베소서 2 장 14~18 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 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토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몸 안에 피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로 두 몸이 하나가 되어 한 영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 장은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렇게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습니다. 두 몸이 한 몸 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4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장에 있습니다. 26~17 절 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생각이 똑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마음을 언제나 갖기 바랍니다.

5 화평한 자의 복을 누리며 끝까지 세상을 이기라

요한복음 16 장 33 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드온 골짜기를 걸어가시며 하신 말씀이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를 걸어봤어야 하는 건데, 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딘 줄 알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곽을 바라보면, 그 성곽 밑이 기드온 골짜기였던 것을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아쉽습니다.거기를 걸으시면서 요한복음 15,16 장을 말씀하셨습니다. 17 장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 평강의 말씀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강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6 그 날을 말하는 자에게 속지 말고 영과 혼과 몸을 의의 흰 옷 세마포로 감싸고 기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6~24 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 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 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곁길로 나가면 두드려 패서라도 다시 제자리로 오게 만드십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으나 친자식은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될 수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이제는 세마포를 준비하라" 였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9 장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듭나면 다 휴거 되는 줄 알았지요. "흰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도들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는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의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에 넘어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지하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중국에 제일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예언을 주십니다. 날짜를 정해 떠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날짜를 정합니까? 2012 년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7 평강 속에 항상 오늘이 그 날이라는 믿음을 지켜 환란 통과 성도가 되지 말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오늘이 그 날인 것으로 알고 삽니다. 오늘,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인 사람들은 →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내일도 안 기다리고, 2012 년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오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시간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시계입니다. 시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시계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마포 입을

준비를 끝낸 사람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란을 지금 통과합니까? 연단을 미리 받는 것이지요. 지금 은혜 시대인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잠깐 참으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늘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 사람들 모두가 정말 거듭나서 100% 휴거 되는 것"** 이지요. 아멘. 주님이 왜 11 명을 데리고 다니고, 그 중에 왜 세 명만 택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요즘의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대학 나와 떵떵거리는 사람들 말고 **왜 그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이해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인 요정도 숫자라도 다 거듭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셀 것 없습니다. 진짜는 양보다 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기는 분별해도 시대는 분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가 많지는 않아도 천기는 물론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깊이 기도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